| 현불 논단 |

담담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코로나19에 속절없이 연말 맞아
인생 중 가장 조심 하며 산 시간

인간 활동 줄며 긍정적인 효과도
미세먼지 감소 · 환경 위기 부각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나

욕망은 문제만을 악화만 시킬 뿐
마음 자제하며 부처님처럼 살자

한 해가 또 저물어 간다. 올해는 세상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위축된 시간을 견뎌왔는데 속절없이 연말이 되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조심(操心)하며 지내온 한 해였던 것 같다. 한 해를 그렇게 자제하고 주의하며 지내왔지만 세상이 코로나19로부터 확실한 희망을 가지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매년 그렇게 고생스럽던 미세먼지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인도에서는 몇 십 년 만에 히말라야가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었다. 세계적으로 전에 없던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이 지구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은 자연과 환경 앞에서 보다 더 겸손하고 자제해야만 한다.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밀려오는 거대한 질병의 위기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평등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내주었다. 질병을 통제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엇갈린 시간들을 겪으며 크고 긴 안목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절감하였고, 공정하고 균등하게 제어되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한 제약에 대한 불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더욱 심화시킴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겪으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인간은 정말 교만한 존재였다. 무엇이든 기술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지구의 모든 자원과 환경을 인간의 뜻대로 개발하고 파괴하며 사용해 왔다. 하지만 극히 작은 존재인 바이러스의 공격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그저 견뎌낼 뿐이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난 1년의 시간을 억지로 수행자처럼 살아왔을 것이다. 옛 스님 말씀에 수행하는 사람은 '중병 든 사람처럼' 생활해야 한다고 하셨다. 숨 쉬는 일에서부터 손발 움직이는 몸가짐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조심하며 병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내야 비로소 중병을 치유할 수 있듯이 고통의 삶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이다.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라고 '배고프고 추울 때 수도할 마음을 낸다' 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고도 길게 이어지는 방역의 피로감으로 지쳐있고 좌절하고 있다. 사업들도 위기에 처하고 개개인의 마음들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조절하여야 한다.

이제는 자신을 자제하고 욕심과 분노를 조절하며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의도치 않게 마주한 현실이지만 국경도 인종도 없는 대질병의 재앙에서 인류와 세계가 공동의 운명 속에 살아가는 동업중생(同業衆生)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잘 대응하고 안전한 환경이라고 자만하는 순간 위기의 짙은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다.

마음속에 분노와 욕망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담담하고 편안한 마음을 찾아야 한다. 분노와 욕망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갈 뿐이다.

이번 위기를 잘 넘긴다 해도 인류와 지구는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연과 환경의 재앙은 분명 이번 코로나19보다 심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수행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담담한 마음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부지런함이 최고의 덕목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으뜸 요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방일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공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부지런하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재능과 부지런함이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이지만, 부지런함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능은 좀 부족하더라도 부지런하다면 자신의 뜻을 충분히 이룰 수 있지요.

게으르고 재능도 없다면 결코 남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출발은 거창할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예가 훨씬 많습니다.

〈파우스트〉를 쓴 괴테는 다양한 분야를 탐구했으며,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괴테를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노력파라고 말했죠.



그림 · 최주현

"나는 여덟 살 때 시를 짓기 시작해 죽기 며칠 전까지 끊임없이 사색하고 글을 썼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을 뿐이지 타고난 천재는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것은 위대하고도 강한 의지와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킬 기량과 인내심입니다."

괴테의 말을 통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파우스트〉는 괴테가 23세에 집필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까지 마지막 장면을 수정했으니, 약 6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죽기 며칠 전까지 작품을 수정할 정도로 괴테는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책 읽고 글을 썼기에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고서도 자신의 목적한 바가 언제 이루어질 지 조바심 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끝나는 인스턴트커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꽃피우고 싶어 하는 마음과는 달리 세상의 일이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동네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이요, 골목길을 청소한다는 것은 베품이자 희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올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일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열심히 매진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하루 아침에 드러나진 않지만, 노력한 시간과 열정이 하루하루 모여서 큰 성취를 가져다줍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연등회, 인류가 보존할 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122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불교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다.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승된 불교 의례이자 우리 민족의 곁에서 살아 숨 쉬어온 전통문화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되레 늦은 감이 있다. 1000년 세월동안 대중과 함께하는 가운데, 시대에 맞게 변화하며 현재까지 계승된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보존가치가 높고 의미 또한 남다르다.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은 등재 확정 직후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도 "적극적인 인류무형유산 지원 사업을 펼쳐 연등회 전승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종교를 떠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각별한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발언에 연등회의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겼다. 대표적인 불교문화이자 불교의례인 연등회는 동시에 우리국민 모두의 문화유산이었고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인류의 자산이 됐다.

보존과 전승의 주체로서 불교계가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입법취지 새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 이 불교계 반발에 직면했다. 불교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그간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법학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된다는 입법취지를, 정치적 이유로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안은 종교행위를 차별의 예외조항으로 명시했다. '성적지향' 을 이유로 법제정을 반대해 온 개신교계를 설득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개신교계 눈치보기식'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종교행위를 차별에서 제외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위험성이다. 학교나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종교교리에 기반한 행위로 차별을 야기하더라도, 종교행위라는 확대해석을 통해 그 위법성이 면제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명백한 차별행위일지라도 종교적 신념이라는 명분이 면죄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식문제다. 종교행위라면 차별도 괜찮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사회는 무수하게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 사회갈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단시안적인 판단이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되레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교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대정당인만큼 차별금지법 발의시 입법 가능성이 높기에,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으로 인권을 퇴보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당장 해당법안의 입법발의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통념에 기반한 온전한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나서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5년 신축년 신년 축하
새해 신축년 불보살님의 상서로운 대광명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소서.
(사) 한국불교종단연합회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종도일동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
◈ 입종서류 ◈
1.입종자격 : 스님, 법사, 포교사. 보광사에서 득도 출가자
2.입종서류 : 신행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3장
3.입종비 : 30만원, 년회비 20만원
◈ 입종시 발급서류 ◈
1. 사암등록증 2. 주지임명장 3. 승려증 및 법사증
◈ 입종문의 ◈
전화 : 보광사 042)284-3929 팩스 : 042-283-5894
총무원장 동화 : 010-8552-7108
(동국대 불교학과,불교대학원 졸)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가오동 보광사)
※ 입종후 위 서류로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됨
사)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광사 주지 동화
NAVER DAUM 에서 현대불교조계종 보광사를 검색하세요. http://bogwangsa.kr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